

Q.

비문학 강의나 교재 유명한 거 다 해봤는데  
도저히 성적이 안 올라요.  
비문학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쌤..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주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 1. 평가원의 '출제 패턴'과 그에 따른 '독해(풀이) 방법'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지금 당장 다음의 물음들에 답해보세요.

- 헤겔의 변증법의 첫 번째 문장(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처럼 이해가 안 되는 추상적인 문장들이 나타날 때 어떠한 태도로 대응해야 하는가?
- 이중차분법 지문 1번 문제는 왜 오답률이 높은가? 이런 문제를 맞혀내려면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가?
- 보통의 법 지문의 <보기>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절차를 통해 풀어내야 하는가?

어느정도 강의를 들었거나 기출을 분석해보신 분들은 이 정도에 대한 물음을 답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평가원의 출제 패턴 및 트렌드,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해요.

몰랐다면 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숙지를 합시다. 홀로 기출 분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것들을 짚어주는 강의나 교재를 통해 '제대로' 숙지하는 게 좋을 거예요.

### 2. '양적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자.

사실 아무리 좋은 강의나 교재도 그것을 찍먹 한 번 했다고 성적이 기적적으로 상승하기가 힘듭니다. 독해 방법이나 선지 판단 방법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흔히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식의 유형은 '안다'는 말의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 주는 의미 차이를 통해서 ③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그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그는 이 사과가 등글다는 것을 안다'에서 '안다'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전자의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비문학에서 필요한 역량은 결국 '표상적 지식'이 아닌, '절차적 지식'입니다. 숙달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자전거도 타면 탈수록 실력이 느는 것처럼, 국어도 같습니다. 어느정도 독해법을 배우고 나면, 그것을 열심히 훈련해야 해요.

### 3. 정말 배운 방법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자.

그런데 올바른 '독해 방법'을 숙지한 상태로 '양적 축적'을 아무리 쌓아도 성적이 별로 안 느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배운 독해 방법과 실제 독해의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배운대로 안 읽는 거죠.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 어느정도는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아무리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려고 해도, 막상 혼자 하면 제멋대로 생각하고, 실전에 가면 완전 지맘대로 읽게 되거든요.

문제는 결국 '양적 축적'이 '질적 진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히 양치기만 해서 성적이 그대로인 학생이 되는 거죠.

이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쓰시다.

한 문장마다 드는 생각들을 한 번 **써보세요**. 간략하게라도요.

수학도 그렇잖아요. 풀이과정 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과정에서 막인지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고를 교정하고 사고력을 확장시켜 나가잖아요.

왜 국어는 다 암산으로 떼우려 합니까. 사고과정을 손으로 써야 효율적으로 내 사고를 교정하고, 사고력을 확장시켜나갈 수 있어요.

물론 시험장에서는 쓸 수 없어요. 쓰면 미친 X이죠. 근데 평소에는 습관을 쌓고, 스스로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문장마다 해야 할 반응들을 써보세요.

<p><b>2문단</b></p> <p>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p> <p>⇒</p>	<p>⇒</p> <p>이는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p> <p>⇒</p>
<p>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지름을 가리켜 장축이라 하는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이심률이란다.</p> <p>⇒</p>	<p>⇒</p> <p>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을 각지름이라 하는데,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p> <p>⇒</p>
<p>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p> <p>⇒</p>	<p>⇒</p> <p>예를 들어, 달과 태양의 경우 평균적인 각지름은 각각 0.5° 정도이다.</p>

이건 제가 수업 때 내주는 과제장의 일부인데요,

제 학생들은 이 빈칸에 제가 알려준 문장 반응의 방법에 맞춰 생각들을 간략하게라도 씁니다. 그리고 해설지와 비교 / 과제 제출 후 1:1 피드백을 받으면서 사고를 교정합니다.

제 수업 자량이 맞긴 한데, 과외를 하든 강의를 하든 여태까지 이 과제를 '제대로' 행하면서 실력이 안 느는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국어 성적이 절실한 분들에게 이 방법만큼 구원이 될 방법이 없을 거라 확신해요.** 제 강의가 아니어도 상관 없어요. 어떤 강의를 듣든,

#### 내 사고과정을 쓰고 → 강사/해설지와 비교

하시라는 거예요.

- ✓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사고'를 했는지 정확히 캐치 가능
- ✓ 그 부분에서 '필요한 생각'이 뭐였는지 확인 가능
- ✓ 이를 교정해나가며 올바른 독해와 풀이가 '습관화'

이런 장점들을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질문 및 상담

[https://open.kakao.com/me/YS\\_T](https://open.kakao.com/me/YS_T)